

# 美, 오바마 케어 폐지 예고... 中, 고령화 대비 '장기요양' 강화

## 요동치는 글로벌 보험시장

“국가도 국민도 돈 많이 드는 보험”  
美 트럼프, 건강보험 개편 예고

中, 녹색금융 등 보험 5대과제 발표  
도심 요양 커뮤니티 운영사업 급증

전통적 보험 선진국인 미국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보험산업 새판짜기에 돌입하면서 올해 글로벌 보험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보험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에 이어 이번 2기에서도 기존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바마 케어는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가입 확대를 골자



Chat GPT가 생성한 글로벌 보험시장 이미지.

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함한다.

### ◆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

앞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줄곧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ACA를 폐지하고 ‘훨씬 더 나은 의료보장’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는 ACA에 대해 “국가도 국민

도 돈이 많이 드는 형편없는 의료보험”이라며 “나는 더 나은 개편 계획에 대한 콘셉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공적 건강보험의 지출 감소에 나선다.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자금 조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촉구를 위해 메디케어 자격 및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최근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수장으로 전문의 출신 메넷 오

즈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CMS는 ACA를 포함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업무를 담당하는데 메넷 오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망가진 의료 시스템은 일상적인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가 예산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오즈 박사는 질병 예방을 장려하는 리더가 되어 의료에 지출하는 모든 달러에 대해 세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장기요양서비스 체계화

중국은 향후 5년동안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산업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금융 ▲녹색금융 ▲포용금융 ▲연금금융 ▲디지털금융 등 5대 핵심영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보험사들은 요양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제적

으로 발달한 도시에 요양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보험+요양’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요양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의존해 집에서 노인들에게 생활 돌봄, 가사 서비스, 재활 돌봄, 정신적 위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의 한 형태다. ‘보험+요양’ 전략은 ‘보험상품+요양 커뮤니티+전문 서비스’라는 종합 솔루션을 통해 보험과 요양 커뮤니티를 연계해 보험을 구매할 경우 요양 커뮤니티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정수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요양 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는 중국인수보험, 태강생명, 태평생명, 태보생명, 평안생명, 신화보험 등이 있다”며 “초기에는 요양 커뮤니티를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했으나 최근에는 자녀 방문의 어려움이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에 요양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10일부터 유가족들에 긴급생활비 지원”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참사 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꼼꼼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0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터 국민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관리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 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외국인직접투자 346억 달러 ‘역대최대’

산업부,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첨단산업·소부장 중심 5.7% 증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첨단산업과 소부장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일본·중국발 투자 증가가 이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5억 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144억 9000만 달러(+21.6%)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전기·전자(52.6억 달러, +29.4%), 기계장비·의료정밀(23.5억 달러, +174.0%), 의약(7.1억 달러, +113.2%) 등 업종에서 투자액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 역시 전년 대포 소폭(0.3%) 증가한 178억 3000만달러다.

국가별로는 일본(61.2억 달러, +

375.6%), 중국(57.9억 달러, +266.1%)으로부터의 투자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EU(유럽연합)의 투자는 각각 52억 4000만달러(-14.6%), 51억 달러(-18.1%)로 줄었다. 미국, EU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지효과와 함께, 지난해 미국과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 달러(+13.5%)를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고, M&A 투자는 78억 6000만 달러(-14.5%)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으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등 국내 제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투자가 많았고 실제 공장을 신증설하는 그린투자가 많았다”며 “이런 부분이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작년 韓기업 해외 플랜트 수주 341억 달러

산업부, 2년 연속 300억 달러 넘어  
전년 203.3억 달러 대비 12.7% 증가

해외 플랜트 수주 금액이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주력 시장인 중동 외에도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플랜트 진출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작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한 금액이 총 340억 7000만달러(약 50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02.3억달

리)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64억 7000만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수주액 중 46%인 155억 2000만달러는 우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으로, 2022년 11월 이후 중동 국가와의 고위급 경제 외교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파달리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그램(73억달러)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해외 프로젝트 중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다.

또 작년 11월 삼성물산이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복합 발전소’(28.4억달러)는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지난해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중동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플랜트 진출 시장을 한층 다변화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 1면 ‘면세점도 불황...’서 계속

호텔롯데는 면세사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기업설명회에서 “해외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 가운데 경영 상태가 부실한 점포 철수를 검토하고, 롯데면세점의 주요 매장 중 하나인 잠실 월드타워점의 매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라면세점도 면세업계 불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 C신라면세점은 지난 2일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사모 형태로 발행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새해부터 자금 수월

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길거나 없으며, 상환 의무가 유연하지만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다.

신라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실적 반등에 실패하며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신라면세점은 3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 163억원 대비 적자폭이 224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불황은 거시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은 다른 면세업장들도 남의 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